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예술인회관 잇단 공약

예술단체장들 "창작·연습공간 약속"

신임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 "공동 임대 형식 부담 경감"
이창훈 제주사진작가협회장 "사진예술인회관 건립 필요"
민선7기에 예술인회관 공약 재밋섬 매입 얽혀 셈법 복잡

2020년 새로 선출된 제주지역 예술단체장들이 잇따라 예술인회관 공약을 내걸었다. 이달 19일 당선된 제주예총 김선영 회장은 제주예총회관 조성을 공약했고 앞서 지난 1일 뽑힌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 이창훈 회장은 제주사진예술회관 건립 초석 마련을 제시했다.

이들 예술단체의 공약과 별개로 민선 7기 제주도정은 제주예술인회관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하나로 포함된 제주예술인회관은 다름아닌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말한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술인회관, 순항할 수 있을까.

▶**제주문학의집 탄생 배경에 예술인회관**=예총회관이나 예술인회관은 제주 예총 등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바람 중 하나다. 단체 설립 역사가 오래되어도 창작 공간은 물론 사무실도 없는 단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은 이같은 고충을 반영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소속 단체들의 고질적 문제인 사무실과 연습 공간 등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 임대 방식 등을 통해 임대료 경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회장은 제주문학관 건립, 제주도립국악단이나 도립극단 신설(추진) 등 장르별로 인프라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제주사진예술의 역사를 기록·보존하는 공간으로 제주사진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사진예술회관은 예총회관이나 예술인회관과는 별도로 사진예술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박물관, 전시장, 창작공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곳으로 구상하고 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여서 이 회장은 3년 임기 동안엔 건립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예총이 제주민예총과 손을 잡고 제주예술인회관 조성 목소리를 내면서 두 단체는 2004년 제주시 건입동 지금의 제주문학의집 건물에 동시에 둥지를 튼다. 제주문학의집 건물은 제주도가 2~3층을 임대해 쓰고 있다. 제주예총·민예총이 2009년 이도1동(동광로) 제주문화예술재단 건물로 이사한 뒤엔 제주도가 제주문학의집 위탁 운영을 맡긴 제주문학의집 운영위원회(제주문인협회, 제주작가회의)가 해당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예총·민예총은 문예재단 건물 입주 초반엔 4~5층을 무료로 썼지만 2014년부터는 매년 임대료를 내왔다.

▶**공약집엔 2020년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운영**=민선 7기 제주도정 공약집엔 제주예술인회관을 '제주아트플랫폼'으로 칭했다. 공약대로라면 제주아트플랫폼은 예술인커뮤니티, 공공 공연연습장, 어린이 공연장, 독립영화관, 문예재단과 예총·민예총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2018~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2020년부터 제주아트플랫폼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선 7기 공약 채택 이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른 제주아트플랫폼은 재밋섬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놓고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들이 "왜 제주아트플랫폼에 제주예총·민예총만 입주하느냐"고 따졌다. 사업을 맡은 문예재단이 지난해 11월 외부 인력들로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사장 공석 사태가 더해지며 언제 결과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제주예술인회관을 둘러싸고 복잡한 지형이 그려지는 가운데 제주아트플랫폼 추진과 관계없이 제주문학관 준공 이후 제주문학의집 활용을 염두에 둔 곳도 있다. 김선영 제주예총 회장은 "10개 회원단체들이 임대료 부담 탓에 창작·연습 공간은 커녕 사무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문학의집을 장차 예총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제주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제주문학관 개관 이후 제주문학의집으로 쓰던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 1주일 문 닫는다

코로나 심각 단계 격상에 휴관이나 행사 취소·연기
주변 상권 등 영향 고려해 서귀포 미술관은 예정대로 마스크 입장·발열 체크토록

제주도립미술관 전경.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현대미술관이 이달 25일부터 임시 휴관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제주도가 비상방위체제를 발동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24일 공공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공립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행사를 연기나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미술관·박물관 입지 조건에 따라 인접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전시를 계속할 경우엔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등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발열 체크도 실시한다.

도립미술관은 25일부터 올해 첫 기획전으로 '흔듸, 봄' 전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이날부터 휴관을 결정했다. 휴관 기간은 3월 2일까지로 향후 추이를 보며 연장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도립미술관 산하 기관인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제주현대미술관도 같은 시기에 문을 닫는다.

반면 서귀포시 도심에 들어선 3개 미술관은 예정된 전시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암기념관은 지난 20일 막이 오른 소장품전을 계획대로 치르고 이중섭미술관은 이달 27일부터 신년 기획 초대전으로 '자화상: 나를 찾다'전을 벌인다. 기당미술관은 이달 28일부터 '너의 녹턴, 나의 세레나데'란 이름으로 새로운 소장품전을 연다.

이미 2월 공연 일정이 없는 공공 공연장에선 3월에도 코로나 여파가 미치고 있다. 제주아트센터는 일찍이 입구 안내판에 3월까지 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렸고 서귀포예술의전당 3월 행사로 공지된 도립 서귀포합창단, 서귀포관악단 공연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제주도문화진흥원도 3월 문예회관 대관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민간 단체들도 행사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서귀포지부는 이달 29일 서귀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열기로 했던 스물한 번째 '시로 봄을 여는 서귀포' 행사를 취소했다. 예술공간 오이는 3월 7~22일 '미스 줄리' 공연을 취소했다. 한국연극협회제주도지회는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예선대회 겸 제25회 제주연극제를 한달 가량 늦춰 4월 18~19일 한라아트홀에서 진행한다. 프로젝트 제주가 기획해 전국 7개 지역 책방에서 갖는 '마지막 제주' 사진전은 2주 늦춰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진선희기자

한 점 한 점 바느질하듯 그린 '실존'

돌문화공원 변경섭 초대전 살림 맡으며 중단한 작업 재개 뒤 10여년 화업 담아

한 점 한 점 점을 찍어 작품을 완성하는 변경섭 작가. 열정과 끈기로 그가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50여 점의 작품을 모아 제주에서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초청 기획전으로 펼쳐지고 있는 '기억하며, 바라며' 전이다.

변경섭 작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오고 가면서 겪었던 자신의 개인적 고민과 체험을 점화(點畵) 양식에 섬세하게 담아왔다. '바느질로서의 드로잉-미세스 정을 위하여'가 대표적이다. 작가가 오랜 기간 남편의 학업을 위해 예술가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했다. 다시 붓을 들고 작업할 날을 꿈꾸던 시간과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했던 작가의 실존적 의미가 배어있다.

이번 전시에는 2018~2020년에 제작된 근작 37점도 포함됐다. 돌문화공원 측은 "한층 원숙해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전남대 예술학원을 졸업했고 미국 미국 브룩헤이븐 칼리지에서 파인아트를 전공했다. 2000년 이래 10여 년 동안엔 개인전을 멈췄고 2011년 인천여성비엔날레 부스 개인전으로 재개했다.

전시는 4월 26일까지 오백장군갤러리에서 계속된다. 문의 064)710-773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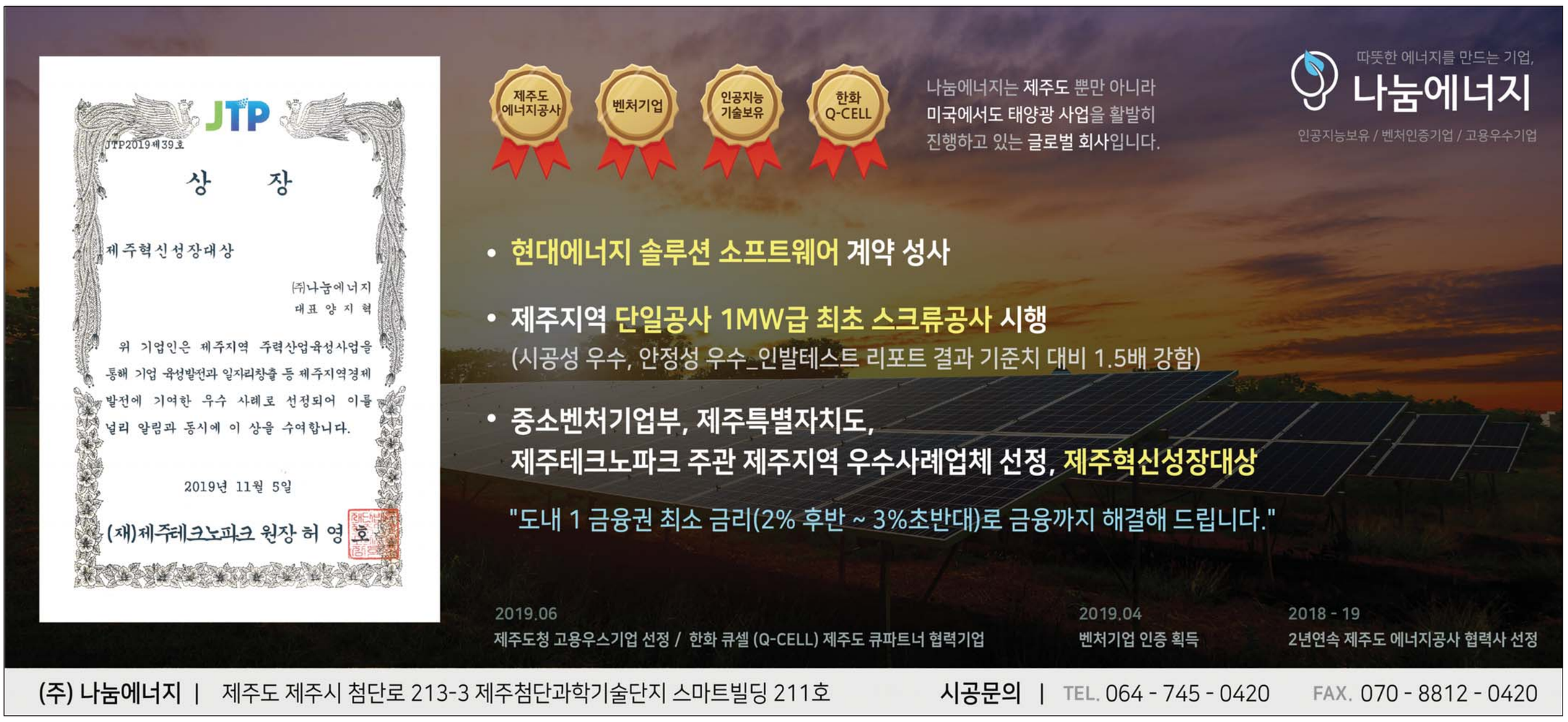
변경섭의 '바느질로서의 드로잉-미세스 정을 위하여'.

어둡고 차가운 나날 견디면 곧 봄

소암기념관 소장품 전시 '다시 봄' 주제로 30여점

봄을 부르는 먹향을 따라가보자. 공립미술관인 서귀포시 소암기념관이 2020년 첫 소장품전으로 준비한 '다시 봄'전이 지난 2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전시엔 회화, 한국화, 서예 등 소장품 35점이 나왔다.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불리는 계절이면서 희망찬 앞날이나 행운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봄처럼,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 따스한 나날을 맞는 듯한 풍경이 스며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달 아래 고아한 자태를 뽐내는 봄의 꽃 매화를 담아낸 박행보·문봉선, 활달하며 거친 묵선으로 그려낸 사석원의 닭과 소, 정제된 필치의 이상향을 그려낸 양창보의 산수, 숲속 빽빽한 나무들의 생명력을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한 박현옥의 작품 등을 꺼내놓았다. 글씨를 통해선 좀 더 직접적으로 봄의 기운을 접할 수 있다. '留春'(유춘, 봄을 기다리다), '花開山輿明'(화개산여명, 꽃이 피니 산이 밝게 빛난다), '春花冬雪是眞跡'(춘화동설시진적, 봄에는 꽃, 겨울에는 눈, 이것이 참된 자취) 등이다. 전시는 4월 26일까지 계속된다.

소암기념관은 제주도내외 흩어진 소암 현중화의 서예작품을 구입과 기증을 통해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작품 수집에 나선다. 문의 064)760-3511. 진선희기자